

# 진안 토마토 농가 고소득 창출

### 16농가 4.8ha로 생산량 1600톤 · 연매출 32억원

진안군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력감소, 기후변화, FTA 등 불리한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화 품목으로 토마토 재배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도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을 시작으로 2015년도 4농가 1.3ha에서 400톤을 생산하였고 2016년에는 12농가 3.5ha를 지원하여 재배시설이 4.8ha로 확대, 생산량은 1,600톤, 연매출 32억이 예상된다.

현대적 재배시설의 토마토 비닐하우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농장의

온도, 습도, 햇빛량, 이산화탄소, 토양 등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ICT 융복합시설을 갖춘 첨단농업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조적 농업이 가능하다.

첨단농업의 실현으로 생산비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 연중 균일한 조건에서 고품질의 토마토를 주 3회 수확하여 자급회전이 빠를 뿐만 아니라 진안의 지역특성에 따라 품질과 맛, 저장능력이 탁월하여 타 지역 농산물에 비해 상자 당 1,000~2,000원정도 고가



에 거래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특화품목으로 토마토 외에도 수박, 멜론, 깻잎, 영지버섯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 토종다래 전국 찾아간다

### 식탁이 있는 삶과 판매협약 10농가서 2.4ha 규모 재배

무주군은 10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사)무주토종다래연구회(대표 이상철)와 (주)식탁이 있는 삶(대표 김재훈)이 다래 판매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무주토종다래 마케팅과 고급화, 차별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상품별 활용법과 레시피를 개발해 홍보한다는 내용, △브랜드 정착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판매시스템 구축에 협조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무주토종다래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생산 및 선별은 (사)무주토종다래연구회가,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은 (주)식탁이 있는 삶에서 담당한다는 등 역할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시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을 관내에 보급해 현재 10농가에서 2.4ha 규모를 재배하고 있다.

무주토종다래의 첫 수확은 지난해 거둔 1톤 정도에 올해는 기상여건이 양호하고 재배·관리기술이 월등해지면서 10~12톤 정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 관계자는 "품에 좋은 토종다

래가 틈새 효과작목으로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식재 후 5~6년이 경과하면 10a당 2톤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 1kg당 1만 원~1만 5천 원에 판매되는 소득유망 작목인 만큼 군에서도 재배확산과 기술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민의 장 선정... 효행장에 김순심씨

무주군은 제32회 무주군민의 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무주군민의 장은 지역의 이름을 높이고 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군민에게 주어지는 영예로, 해마다 문화체육장과 산업근로장, 향토공익장, 효행장, 환경장 등 5개 부문에 대한 수상자를 선발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는 총 4개 부문(문화체육, 산업근로, 향토공익, 효행)에 6명의 후보가 추천됐으며 지난 5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는 적상면

김순심 씨(54세)를 효행장으로 최종 선발했다.

효행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군민에게 주는 것으로, 김순심 씨는 30여 년 간 홀시어머니(92세)를 극진하게 모셔 효부라는 칭송을 받고 있으며, 마을에 혼자 사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공경심이 투철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마을 부녀회장

직을 맡아 일하면서 마을 일에도 솔선수범해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상인만큼 수상인원과 부문에 엄매하지 않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상자를 선발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8월 31일 무주반딧불축제 군민화합의 날에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산업과  
 063-430-2951

# 임진왜란 구국항전을 되새기며...

### 완주군, 웅치전투 추모식 거행

완주군이 왜군에 맞서 장렬하게 산화한 선열들을 추모하는 제424주기 웅치전투 추모식을 10일 소양면 신촌리 웅치전적비에서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소양면 신촌리 월상마을에 위치한 웅치전적비 광장에서 열렸으며 박상일 완주군수, 정성모 군의회 의장, 관내 기관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분향과 헌화, 추모사 낭독, 추모 헌무?헌가 등을 갖고 웅치전투 당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순국으로 왜군의 전주성 진입을 저지해 국가수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소양면이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었음을 되새겼으며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시간이었다.

강시복 웅치전투기념사업추진위원장은 "오랜 시간 자평거둔 웅치전투가 완주군과 지역민의 관심 속에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웅치를 지키다 장렬하게 죽어간 선

들의 자손임을 자랑스러워 삼고 긍지와 자존심을 가진 실천적인 애환인이 되기를 당부했다.

웅치전투는 1592년(선조 25) 금산을 점거한 왜군이 협한 웅치재를 넘어 전주방면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주판관 이복남(李福男), 의병장 황박(黃璞), 김재군수 정담(鄭堪), 남해현감 변응정(邊應井) 등이 1592년 7월 8일 군대를 연합한 뒤 힘찬 지형을 이용해 왜군의 침입을 막았다.

장군 4명을 포함한 군사 3천명이 결사항전을 펼쳐 적병 수백명을 죽였지만, 전투력이 우세한 왜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전투 후에 웅치의 긴 고갯길은 조선군의 시체로 덮였다고 한다.

하지만 웅치전투는 전주를 지키는데 이들의 공이 실로 커서, 당시 권율장군은 행주산성의 전투보다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웅치전투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웅치전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그날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웅치전투가 시작된 음력 7월 8일에 웅치전투 추모식을 올리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최용득 장수군수, 사과 농가 방문 격려

최용득 장수군수는 10일 관내 영농작업장(과수원)을 방문해 영농작업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최 군수는 사과 일따기 작업이 한창인 농가를 찾아 풀 수건을 전달하고 폭염특보 시 수분(염분)을 섭취하는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올해 여름은 폭염과 지속적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무더위 쉼터 33개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풀 수건, 풀 방석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완주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완주군 보건소가 지역건강통계 생산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행하는 통계조사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전국 25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을 대상으로 주택유형별로 선정된 표본가구 및 개인별로 교육 받은 전문조사원 6명이 대상가구를 방문해 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정신 및 구강

보건, 삶의 질 등 건강과 관련된 총 18개영역 161개 문항을 설문 조사 한다.

조사를 통해 산출된 지역 주요 보건통계 자료는 2017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평가하는데 주요자료로 반영된다.

조사는 조사대상 가구 선정 → 조사대상 가구 선정통지서 우편발송 → 지역사회건강조사원 가구방문 →건강면접조사 및 담뱃물 증정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로 진행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 특별블로그

### 장수 장계면 회전교차로 설치

### 국비 15억 확보... 내년 착공

장수군은 장계면사무소 앞(국도19호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국비 15억을 확보하여 2017년 설계와 착공을 실시한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국회 안호영 의원을 방문하여 주요 도로사업과 더불어 본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안 의원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지를 약속했다.

또한 안호영 의원은 "장수군은 타 지역에 비해 SOC 등의 분야가 열악하여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만큼 지역주민 편익을 보다 증진시켜 편익히 지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읍, 마을 순회 모정 좌담회

진안군 진안읍(읍장 김종구)은 지난 5일부터 6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모정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읍정 현안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비롯한 2016년도 진안읍 삼축제, 도시가스 공급계획, 쓰레기3NO 운동, 친환경 우렁이농법, 고추시장 개장 및 마이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군 현안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종구 읍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밀착행정으로 행정의 손길이 구석구석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진장소방서, 번암 이장단회의 기초소방시설 조기 설치 설명회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10일 번암면 이장단회에서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조기 설치 설명회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2년간 전북도 내에서는 총 2,323건의 화재가 발생, 이중 주택화재는 624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2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화재발생을 초기에 인지하여 진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농촌 마을은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어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 도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 초기 소방차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 설치가 필요하다.

/장수=고관호 기자